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4· 끝> 선 수행의 길잡이를 마무리하며

선 수행의 길잡이' 교재로 쓰인 <선가귀감>은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선가귀감>이란 제목의 뜻처럼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선(禪) 수행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06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하여 매주 연재하던 글도 2007년 8월 마지막 주로서 어느덧 회향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후학들을 위하여 이 책을 쓰신 서산 대사의 서문(序文)과 그의 제자 사명 스님의 발문(跋文)에 담긴 옛 선사의 깊은 뜻과 정성을 마음에 새겨 불법 수행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바라며 두 선사의 글로 이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글을 애독해 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 서산 대사의 서문

글마다 살아계신 부처님

게실 것이니 공부 힘써야

예전에 불교를 배우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말하지를 않았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았습다. 보배로 여긴 것은 오직 대장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가면서 외우는 것은 세속 선비들의 글이요, 청하여 지나는 것은 벼슬아치 시(詩)뿐입니다. 그런 글을 고급 종이에도 아름다운 비단으로 책을 꾸미면서 아무리 많이도 죽한 줄 모르고 가

장 큰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배로 삼는 대상이 예전 사람과 어찌 이차지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예전 사람의 배움에 그 뜻을 두고 대장경 속에 있는 부처님의 글도 보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은 너무나 많아 대장경 속에 있는 글들이 마치 바다처럼 깊고 넓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뒷날 나처럼 공부할 사람들이 본분을 벗어난 결과지 일에 힘을 쏟을까 걱정이 되었으므로, 대장경 글들 가운데 요점만 추려 수백 마디로 책을 만드니, 문장은 간결하나 요묘한 뜻을 두루 다 갖추었다고 할 만합니다. 이 글로 얕한 스승을 삼아 끝까지 공부해서 요묘한 도리를 얻는다면, 이 글 한 마디 한마디에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게실 것이니 부지런히 공부에 힘쓰고 또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문자를 떠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격외(格外) 도리의 기이한 보배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니, 아직 뛰어난 근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정갑자(嘉靖甲子 1564년) 여름 청허당(淸虛堂) 백화(白華) 도인이 첫 글을 쓰다.

■ 사명 스님의 발문

선가귀감은 선·교의 본보기이며 법 실천하는데 좋은 약

<선가귀감>은 조계 노화상 되는 큰스님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아! 약 200년에 걸쳐 요즈음까지 부처

님의 법이 나날이 쇠퇴하여 참선과 교학을 하는 무리들이 저마다 다른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교학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은 문자찌꺼기에 맛을 붙여 부질없이 바닷가의 모래알만 썰 썰, 대승을 막론하고 모든 부처님 가르침 속에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 깨쳐 들어가게 하는 길'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참선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은 '스스로 천진한 성품만 믿어 도를 닦아 깨칠 것이 없다' 하여 우습게보고, 부처님 세상을 이해한 뒤에서야 비로소 반심하여 점차 온갖 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선과 교가 어지럽게 뒤섞여 모래와 금을 가리치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이는 <원각경>에서 "중생은 본래 부처님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본디 미혹이나 깨달음이란 없는 것이라고 여기어 인과를 부정하여 완전히 무시한다면 바로 실패 소견이 되고, 또 "오랫동안 닦아 무명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참 성품이 땅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영원한 참 성품을 잃어버린다면 이 또한 실패 소견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위대합니다. 부처님의 도가 바로 전하여지지 못함이 어찌 이차지도 심하단 말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룰 락 말라 이어가는 명맥이, 마치 한 울의 락카락으로 천근의 무게를 달듯 거의 땅에 떨어져 명맥을 이어갈 길이 없습다. 우리 노스님께서는 서산(西山)에 있던 10년 동안 바쁘게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여기에 50여 권의 경전이나 논서와 어록을 보시다가 짬짬이 요긴하고 간결한 말씀이 있으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절 몇몇 제자들이 공부에 대해서 물으면, 이 내용들을 가르치며 땅 때를 물든 넘치는 사람은 놀라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호되게 체질하여 깨달음의 문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 합니까? 노스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간절하였지만, 법문의 수준이 높고 어렵다고 까탈을 부리는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 않았습다. 노스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 각 구절마다 주해를 달아 차례차례 풀이

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글들의 내용이 하나로 쫓 이어져 뜻이 잘 통하니, 팔만 대장경의 요점과 다섯 종파의 근원이 모조리 여기에 다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마다 이치에 맞고 구절구절이 좋지(宗旨)에 어긋남이 없으니 이에 편협했던 사람은 원만해지고 막혔던 이는 시원스레 통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글이 선과 교의 본보기라 할 만하고 부처님의 법을 알고 실천하는 데에 좋은 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스님께서는 늘 이 공부에 대해서 한 말씀 반 구절이라도 마치 칼날 위를 걷듯 문자로 기록될까 염려하셨습다. 그러나 어찌 이 글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당신의 숨겨진 내보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보원(普願) 스님이 이 글을 정서하고 의천(義天) 스님이 교정을 하니, 정원(淨源), 태상(太常), 법융(法融) 스님들이 머리 숙여 절을 하며 "전에 없던 훌륭한 글입니다"라고 찬탄하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이 함께 수중에 있던 돈을 털어 목판을 새기고 이 글을 세상에 알려 큰스님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가르침은 깊고 넓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바다 속에 들어가 용의 구슬을 찾고 귀한 산호를 캐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육지처럼 자유롭지 않으니 물만 바라보고 탄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려낸 공(功)으로 여러사람을 깨우쳐 준 노스님의 은혜야말로 산같이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실사 천 번 만 번 빼와 삶이 으스러지도록 이 목숨을 바친들 어찌 노스님의 은혜를 탐갈만치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천리 밖에서 이 글을 보고 들어도 놀라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받들어 읽고 보배로 삼는다면, 참으로 천 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만력기묘(萬曆己卯 1579년) 봄 조계종유(曹溪宗遺) 유정(惟政) 구결(口訣)에 절하고 삼가 발문을 쓰다.

■ 원순 스님(송사건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6>

정신분석과 불교-6

정신치료를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꽤 있다. 불교에는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신 병원이나 심리상담소를 찾는 주요 증상은 정신증, 신경증, 성격 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와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생활상의 문제다. 그러나 불경에는 이러한 심리 장애를 치료한 사례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경에 수록된 많은 부분이 일반인 가운데서도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론도 많이 개발되었다. 프로이트 시대의 대표적인 기법이 자유연상·저항·전이·꿈의 분석과 해석이다. 자유연상과 저항, 전이, 꿈 등을 통해 내담자의 미로 같은 마음의 연쇄를 따라가다 보면 내담자의 마음의 내력과 현재의 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가가 이들의 관성과 의미를 해석해 주면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 이후에는 환자의 증상의 원인

정신분석은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해 과거 경험에 천착 불교는 과보 받아들이고 현재 철저히 참구 미래 준비

정신적으로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수승한 승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올바른 삶을 살게끔 이끄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정신분석의 대상은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무의식 속에 억압된 내용이 자아를 압도하여 자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목표는 무의식적인 욕구나 충동을 의식화하고 통합하여 성숙한 적응 방식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지금까지 유아· 아동기적 갈등을 방어하는데 사용했던 심리적 에너지를 현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성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정신분석은 애당초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전한 학문이니만큼

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경험에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정서적 재경험이 기억의 탐구와 지적인 재구성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교정적 정서 체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으로, 내담자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과거에 그가 처리할 수 없었던 정서적 상황에 다시 노출시킴으로써 이전 경험의 외상적(traumatic) 영향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분석은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과거의 심리적 경험에 천착한다. 그리하여 프로이트가 말한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반면 불교는 이미 흘러간 과거를 부여잡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 업인의 과보로서 견디고 받아들이고, 현재를 철저히 참구함으로써 미래를 바꾸어 나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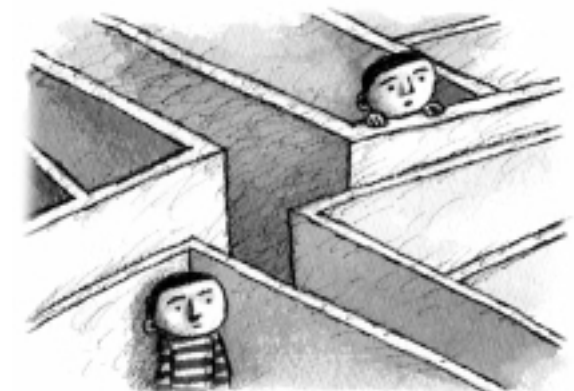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오탁악세(五濁惡世)

흔히 요즘 세상을 오탁악세(五濁惡世)에 비유한다. 오탁악세는 다섯 가지 더러움(不淨) 즉 곱탁(劫濁),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명탁(命濁)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세상이라는 뜻이다. <법화경> 방편품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이 가장 긴 8

만4000세로부터 줄어들어 2만세 때에 이르면 점차 다섯 가지 더러움이 많아진다고 했다.

불광법회에서 故 광덕 스님은 오탁악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곱탁은 시대가 탁하다는 뜻인데 오늘날 전쟁, 천재지변, 역병, 기근 등 사회적인 고난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국제 평화운동에 기여해야 한다.

두 번째 견탁은 사상이 물들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그 사람만 불행해지고 그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고 천재지

변이 생기는 등 못 산다. 전법의 근본은 견탁을 없애는 데 있다. 견탁을 없애면 곱탁도 없어진다.

세 번째는 번뇌탁이다. 탐진치 삼독심, 남을 원망하는 생각, 온갖 정신적인 악덕이 성한 것은 번뇌가 많기 때문이다. 번뇌가 많다는 것은 자기 본성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경계에 빠진 마음이다.

네 번째 중생탁은 견탁, 번뇌탁의 결과로 인간의 과보가 점점 쇠퇴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몸은 약해지고 괴로움은 많고 복이 적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명탁(命濁)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의미이다. 강지연 기자

불기 2551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병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일 시 : 불기 2551년 9월 4일 ~ 9월 6일(음, 7월 23일 - 25일)
- ◆ 입 재 : 불기 2551년 9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단, 당일 오후 2시까지 입소등록 완료 요망)
- ◆ 대 상 : 대한불교대승종 전 종도
-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 ◆ 장 소 : 다보수련원 (충북 괴산군 청연면 삼송리 산 392-10 ☎ 043)833-7789)
-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2)443-5078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638-4088 / 총무부장 011-507-2837 (각 교구 총무원)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 대한불교대승종 각 지방총무원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종의회 · 대한불교대승종 전국 신 도 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암 혜심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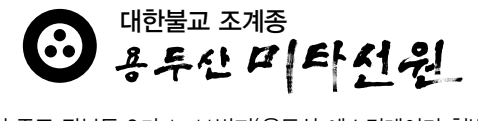
용두산 미타선원 재가선방 추계산철결제 방부안내



편안히 오셔서 수행의 즐거움과 법열(法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심속의 참선전문 수행도량 미타선원의 하안거결제가 50여 명 수행자들의 뜨거운 수행열기와 원력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의 열기를 추계산철결제로 옷ით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뜻이 있는 분들은 방부접수 하시어 수행의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지 하 림 합장

- ☎ 방 부 : 선열당(禪悅堂), 안심당(安心堂) 각 20여명
- ☎ 입방일 : 불기 2551년 9월 10일 월요일
- ☎ 문의 및 접수 : 051)253-8687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용두산 에스컬레이터 첫번째 하차점)
T : 051)253-8687 F : 051)253-8684 홈페이지 www.mitazen.net



미타선원 용두불